

권웅렬 고문 시조 태사공 춘추향사 제례복 등 기증



권오상 사무총장과 권주연 파종회장협의회 회장이 제례복을 살펴보고 있다.



권웅렬 고문이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춘추향사 때 입는 제례복(祭禮服)을 마련하여 기증했다.

기존 제례복은 수년 동안 춘추향제 봉행 시 여러 현관들이 차려입었던 관계로 낡고 헤어져서 새롭게 장만하게 되었다. 이에 대종회 권오상 사무총장과 권정창 제례위원장, 권경웅 제례위원, 권주연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오의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행완 편집국장은 10월 5일 10시 30분에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1-2에 위치한 고려민속사를 방문하여 제례복과 제례 때 신는 제신, 사모, 제기 등에 대해 색깔과 재질을 심사숙고하여 선정했다.

먼저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조현관이 입는 제례복(2벌)은 자색으로 선정했으며, 아현관과 종현관이 입는 제례복과 집례와 대축이 입는 제례복(8벌)은 남색으로 마련했다. 허리에 착용하는 관대는 자색 2개, 남색 8개로 총 10개, 문무백관이 상복(常服)에 착용하던 관모(冠帽)인 사모(紗帽)도 10개씩 준비했다. 제례복의 동정은 하얀색으로 하되 때를 잘 타서 금방 더러워지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개량할 수 있는 탈부착식으로 하고, 제례 때 신는 제신(10벌)은 당상관들이 신었던 신발로 검은색 바탕에 흰무늬 문양을 넣어서 디자인하도록 주문했다. 제신의 크



기별로는 265mm 4
켤레, 270mm 3켤레,
275mm 2켤레, 280mm
1켤레이다.

또한 제기(祭器)
는 귀빈 방문 시나
년 초 등 정알례(正
調禮)를 행할 때를
대비하여 잔 2개, 잔대 2개, 향로 1개, 접시
7개, 젓가락 4매를 각각 구입했다.

아울러 매년 춘추향제 때 능곡회 회원들은 보라색 조끼를 입고 제수를 봉송했다. 이에 권웅렬 고문은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제례에 진실할 제수(祭需)를 시조 묘소까지 봉수하는데 조끼를 입고 봉수하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정갈한 도포를 차려입고 봉수하는 것이 도포를 입는 사람도 또 보는 사람들도 더 엄숙해지고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춘추향제를 더 품위 있게 하고 예법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며 도포 50벌을 마련해 주었다.

2022년 11월 10일에 봉행되는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춘추향제 때부터 현관들은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새 제례복과 제신, 사모 등을 차려입고 봉행한다. 능곡회원 역시 새롭게 장만한 도포를 입고 제수를 봉수하게 된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형 삼덕회계법인 대표 YMCA 봉사대상 수상

권오형 삼덕회계법인 대표(대종회 부회장)가 10월 29일 서울 종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 YMCA 창립 100주년 감사축제'에서 20여 년간 감사로서 무료봉사로 한국 YMCA의 투명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한국 YMCA는 1922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로 시작하여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여성단체다.

권오형 대표는 한국 YMCA 감사뿐만 아니라 (재)아가페 소망교도소 감사도 1997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도소이다. 민간교도소는 브라질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도소 출신들의 재범율이 높아서 민간교도소를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재범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미국과 영국을 거쳐 1995년에 한국에 도입된 제도이다. 한국정부에서는 민간인 교도소법을 제정하여 불교와 기독교와 카톨릭 교단에 운영 제안을 했으나 기독교만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허니 기독교 교도소라고 불린다. 한국기독교에서는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및 사랑의 교회가 총 200억 원을 지원하여 6만평의 부지를 경기도 여주에 구입하

여 시설을 구비하여 2008년부터 운영 중이다. 소망교도소에서는 수형기간이 2년 미만인 수형자를 무작위로 차출하여 약 450명을 수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도소 면회시간은 10분 정도인데 반해 소망교도소 면회시간은 약 3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소망교도소를 거쳐간 수형자들은 재범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한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교도소라고 할 수 있다.

권오형 대표는 40년 동안 한 우물을 판회계전문가로서 투명회계를 외치며 회계사 사회를 리드하며 참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사회에서 상속증여세 분야 정통학파로서 제39대와 제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경희대총문회 제29대 회장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공직자 바둑연합회 공동자문위원장, 국세청행정개혁위원, 기독실업인회 부회장,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등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한준)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 6일, 제62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제20대

동정

▲권영화 전 평택시의회 의장이 지역의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택농업 발전연구회'를 발족했다. 그는 34세이던 2004년부터 통장을 맡아 12년 넘게 주민들의 민원과 마을의 대소사를 쟁기기 시작했다. 정치에 입문 후에는 내리 3선 하여 의정활동을 하며 의장까지 역임하면서 '미스터 양촌리', '권불암 아저씨' 등으로 불릴 정도로 친근하고 포근한 의원이었다. 연구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후농(厚農), 편농(便農), 상농(上農)의 3농 정책을 계승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꾸준히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화 전 평택시의회 의장이 지역의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택농업 발전연구회'를 발족했다. 그는 34세이던 2004년부터 통장을 맡아 12년 넘게 주민들의 민원과 마을의 대소사를 쟁기기 시작했다. 정치에 입문 후에는 내리 3선 하여 의정활동을 하며 의장까지 역임하면서 '미스터 양촌리', '권불암 아저씨' 등으로 불릴 정도로 친근하고 포근한 의원이었다. 연구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후농(厚農), 편농(便農), 상농(上農)의 3농 정책을 계승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꾸준히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권도형(47) 창원시설공단 직원이 '2022년도 3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에서 표창을 받았다. 인명구조와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진해해양공원에서 짐트랙을 이용하던 60대 남성이 견인장치에 머리를 부딪친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신속한 응급처치와 구조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권도형씨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근무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동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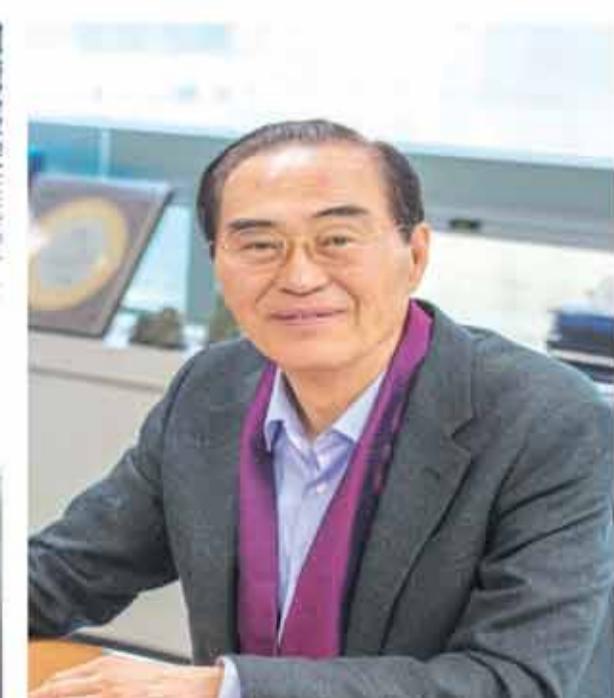
▲권대식(54) 경북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상주지부장이 지난 4월 21일 조합원 200여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에서 92.59%의 지



지를 얻어 제8대 상주지부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3년이다. 권 지부장은 현재 경북교육청 상주도서관에 근무 중이며, 상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주요 수상으로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 교육감 표창(2018), 모범공무원 교육감 표창(2021)을 받았다. 그는 조합원의 권익을 개선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권양섭 군산대 법학과 교수가 10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15회 사이버 안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권양섭 교수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및 한국 디지털포렌식 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디지털포렌식 기술발전과 정책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을 힘쓰는 등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표창을 받게 됐다.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홈페이지 www.dygroup.co.kr | 대표번호 01-3472-591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5층